

금남로 5차로 유지·분수대 주변에 실개천

옛 전남도청 일대 민주평화광장 조성 어떻게

광주시 실시설계 시작...2단계 나눠 추진 총 113억 투입...330㎡ 규모 소공원 조성

5·18민주화운동의 현상이었던 옛 전남도청 일대를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민주평화광장' 조성사업이 기본구상 마무리와 함께 실시설계가 시작되는 등 서서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광주시는 옛 전남도청 분수대 주변 및 금남로 일원을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시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만들기 하고, 이 사업을 지난 6월 민선 5기 후반기 10대 희망프로젝트의 하나로 선정, 2단계로 나눠 추진해오고 있다.

어지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완공 사업인 오는 2014년에 함께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화전당 완공 이후 광장 조성사업이 추진될 경우 도심이 또다시 공사장으로 변하는 '비효율'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5·18민주광장에 있는 분수대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분수대 둘레에는 실개천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장 바닥에는 광주를 상징하는 무등산과 5·18 당시 '시민의 함성' 등을 형상화한 모자이크를 설치하는 등의 시안을 마련, 시의회 설명회와 시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최근 고사한 옛 도청 앞 회화나무 부근에는 330㎡ 규모의 소공원을 조성, 아시아문화전당사업에 이미 예정돼있는 종각·상무관 주변 공원과 함께 도심 녹지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또, 현재 금남로 인도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한전 배전반과 대중교통버스 등은 공공디자인 등을 적용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남로 차도의 경우, 현재의 5차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518m 구간을 화강암 블록으로 포장,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고 민주화의 상징공간으로서 경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주변 빌딩과 상가의 간판정비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2단계 사업=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면엔 있는 총장로 입구 일대 및 전일빌딩과 동부경찰서를 포함한 금남로 일원 등 총 2만3750㎡의 공간을 '국립 민주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지역을 세계적으로 민

주주의 확산에 기여한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5·18민주화 관련 상징 시설물과 공원화 사업'에 반영돼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추진 시기는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선 옛 전남도청 일원은 1980년 5월 역사 현장일 뿐만 아니라 광주의 상징적인 공간이자 미래의 꿈과 희망이 담긴 기반시설"이라며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이 역사적인 공간을 광주의 랜드마크로 조성, 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덜다 더워' 소도 폭염은 못참아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15일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장동동의 한 축사에서 소에게 물을 뿌려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무박 2일 기차 타고 정동진 해돋이 구경

내달 2일 송정역서 출발

코레일 광주분부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다음달 2일 정동진·오대산국립공원·상원사·월정사행 무박 2일 기차여행을 운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여행은 2일 오후 8시20분 광주 송정역을 출발한 뒤 다음날 새벽 4시50분 정동진역에 도착, 해돋이와 인근 관광지를 둘러보는 코스다. 관광 코스는 정동진역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동종을 보관 중인 오대산국립공원 상원사, 80년이 넘는 수령의 전나무 1700그루가 숲길로 조성된 월정사전나무 숲길, 주문진 어시장 등이다. 3일 오후 2시20분 동해역에서 출발 열차는 같은 날 밤 10시7분 광주 송정역에 도착한다. 1인당 경비는 성인기준 8만5000원, 만 65세 이상은 8만3000원, 12세 이하는 7만 5000원이다. 자세한 문의는 코레일 광주본부 광주 송정역 여행상담센터 062-942-3376로 하면 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모든 경영 인프라 고객중심으로 바뀌 예술·여유가 흐르는 문화지하철 구현”

고객만족 평가 전국 1위 광주지하철 이호준 사장

광주지하철을 운영하는 광주도시철도공사에는 요즘 경사가 겹쳤다. 지난 4월 전국 지하철 중 최장기간 무재해 사업장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0일엔 안전행정부 주관한 '2013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평가'에서 전국 7개 지하철 운영기관 중 1위를 차지한 것이다. 광주지하철은 이제 경영 및 운영 분야에서도 명실상부한 1등 지하철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1년 취임 이후 혁신을 주도지휘하며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이호준 사장을 만났다.



구성된 고객만족경영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별한 경영철학이 있으면 소개해달라.

▲시민의 발자취가 벗어 나는 발전적 공사 경영을 위해 취임 초부터 '혼·창·통의 3중주'를 경영철학으로 삼고, 임직원의 공감을 이끌어 내왔다. '혼(魂)'이란 꿈이며 비전, 신념이다. '창(創)'은 늘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말하며, 창의적인 업무수행에 매진하겠다는 뜻이다. '통(通)'이란 서로 통하는 것, 소통과 교류를 뜻한다. 이와 함께 실천행동으로 '1-Best' 운동을 전개해왔다. '1-Best'란 ▲바로 나(1)부터 ▲기본적인(Basic) 것부터 ▲쉬운(Easy) 것부터 ▲작은(Small) 것부터 ▲바로 오늘(Today)부터 실천하는 운동이다.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을 받았다. 축하드린다.

▲먼저, 전국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지하철로 인정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만족도는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직접 평가해주시는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수상보다도 의미가 깊다. 따듯한 질책과 함께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오늘의 자랑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먼저, 단순한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지하철역을 '시민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문화와 예술, 여유가 흐르는 문화지하철을 구현했다. 또한,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고객만족 시스템을 도입했다. 고객초청 간담회, 시민모니터요원, 블로그 시민 기자단 등 다원화된 여론 수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화된 고객만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감히 버렸다. 대신, 명확한 고객만족 비전과 장기적 전략을 바탕으로 차별화되고 일관된 고객만족활동을 추진했다. 고객의 실질 체감만족도가 향상된 것이 그 결과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먼저, 단순한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지하철역을 '시민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문화와 예술, 여유가 흐르는 문화지하철을 구현했다. 또한,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고객만족 시스템을 도입했다. 고객초청 간담회, 시민모니터요원, 블로그 시민 기자단 등 다원화된 여론 수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화된 고객만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기분적인(Basic) 것부터 ▲쉬운(Easy) 것부터 ▲작은(Small) 것부터 ▲바로 오늘(Today)부터 실천하는 운동이다.

-올해는 어떤 도약을 준비중인가.

▲광주지하철도 내년 4월이면 개통 10년째에 접어들다. 광주지하철은 그동안 우리 시의 대중교통체계를 선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 공사는 지금까지의 노후유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변화와 혁신의 발판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고강도 경영합리화를 통해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한 신사업 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북구 지방재정균형집행 대상 안행부 평가...사업비 8억 받아

동구, 9월 13일까지 300명 총장 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광주시 북구는 안전행정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지방재정균형집행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해 상 사업비 8억 원을 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북구는 균형집행 전담 상황실을 설치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일자리사업과 서민생활안전, SOC 사업 등 서민생활 안전에 역점을 둔 지방재정 균형집행의 내실을 다져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송광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지방재정 균형집행의 내실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구는 2010년부터 3년간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에서 대상·최우수상 등을 수상해 상 사업비로 16억5000만 원을 받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 동구는 오는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동구 금남로·총장로 일대에서 펼쳐질 '제10회 추위의 7080 총장 축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15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다. 모집 인원은 300명이다. 개인 또는 단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자원봉사자들은 별도의 교육을 받은 뒤, 축제 기간 행사장 안내 또는 홍보활동 일을 맡게 된다. 자원봉사자들에게겐 상해보험 가입·자원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자세한 문의는 1365 자원봉사 인터넷 홈페이지(www.1365.go.kr)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동구는 축제기간 동안 참여·체험·전시·추억예술마당 등 7개 부문, 65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자연산 참옷을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옷 보양식전문점

삼계탕 전문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 참옷 음식: 토종 참옷닭 / 옷 청둥오리 / 옷 삼계탕
- 한방 음식: 한방 백숙 / 한방 청둥오리 / 춘달백숙 삼계탕

토종참옷닭 (9인분 식사소포함) **40,000원**

춘달백숙 **38,000원**

위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합양옷닭 062)515-5757(옷칠옷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미뷰병원 뒤(구,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